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이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권·학생인권 충돌 넘어 미래 해법 모색

한국인권교육원,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 성료
송영길 상임고문, 민주주의 실현 공로 ‘올해의 인권상’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원장 김재형)이 10일 개최한 기념식이 지역사회 인권 담론을 다시 정비하는 자리가 됐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 구조, 시민사회가 직면한 인권 의제의 무게를 다시 묻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인권교육원은 1977년 국제앰네스티 광주·전남지부 활동을 기반으로 1999년 출범해 2001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40여년간 지역 인권 감수성 확산과 시민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온 단체로,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과 학술세미나를 이어오며 지역 인권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식전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김선희가 ‘그리

운 금강산’ 등 두 곡을 선보였다.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해온 김 소프라노의 공연은 이날 기념식의 분위기를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끌었다.

기념식에서 흥기대 광주·전남 앰네스티 이사장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이 제정된 지 7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권은 현장에서 다시 해석되고 실천돼야 할 과제를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를 짚었다.

그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한국 교육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학교 내 안전과 신뢰

의 약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열린 학술세미나는 교육 현장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깊게 전개됐다.

발제는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이 맡았으며, 학교 인권 환경의 재설계,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재정립, 지역 간 교육격차 등 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삼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최장현 광주승원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현장의 긴장과 정책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세미나는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두 축이 충돌을 넘어 상생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2024년 올

해의 인권상’은 송영길 푸른아시아 상임고문에게 돌아갔다.

송 고문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노동 현장에서 약자를 대변한 인권 변호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 활동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헌정 가치를 다시 환기한 일장 연설 등 오랜 기간 일관된 인권 실천 활동들이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은 특정 개인의 공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 가치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은 “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은 시민과 교육·행정·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할 공동과제”라며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교육·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육성 전국 1위…미래인재 전략 ‘결실’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청년농업인 육성 대상 수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청년농 발굴·육성의 정책 효과와 창업 지원 성과,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사후관리 체계 등 청년농 지원 구조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전남농기원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기반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20년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기술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조직을 갖추고, 농업·농촌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육성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해왔다.

성과도 뚜렷했다. 2021년에는 청년창업농타운을 조성해 벤처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2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농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마련해 초기 농창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H

회원 배가운동을 실천해 2143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청년 벤처창업 체계를 완비하며 청년농업인 입주 기업의 첫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성과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강화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대상은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주)새비, 초록우산에 6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주)새비가 600만원 상당의 ‘이미르 선크림’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이미르 선크림’은 총 216개로 연말을 맞아 자립을 앞두고 있는 광주 자립준비청년들과 부모·조부모·동생 등을 돌보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새비는 자연에서 얻은 천연 성분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날 기부한 ‘이미르 선크림’은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개발됐다.

한아람 (주)새비 대표는 “선크림이 기본적인 생활용품임에도 취약계층의 우선 순



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기부를 결심했다”면서 “앞으로도 초록우산과 함께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양상공회의소 13개 회원사

광양시에 CCTV 설치 기탁금 2700만원 전달

광양상공회의소 13개 회원사는 시민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기탁금 2700만원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이번 CCTV 설치 기탁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CCTV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광양시는 현재 1600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달받은 기탁금을 통해 시내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광일 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안전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CCTV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



제다”며 “지역 발전과 공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1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와 회원사들은 지난 2023년에도 CCTV 설치기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광주영신원에 아동·청소년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상의, 광주영신원에 후원물품 기탁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광주영신원에 아동·청소년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보세 광주영신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10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이다. 물품은 공부방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아이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월기 취약계층 물품 후원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정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부음

▲조복례씨 별세, 속회·영육·진육 씨 모친상. 이성오(광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김우상씨 빙모상. 김채민·이소미·김채원씨 외조모상=발인 11일 오전 9시. 광주 북구 하서로 663번길97 그린장례문화원 302호, 문의 062-250-4455.

은세 (음력 10월 22일)

48년생 구박당할수 있으니 말을 삼가라
60년생 금전이 생기거나 귀인을 만나다
72년생 독단하지 말고 부군과 상의
84년생 충돌 피하여 겸손한 마음 유지하라
96년생 연인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51년생 참아야 후회가 없다
63년생 문서 들어오고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75년생 남자에게 사기당하거나 속을 수 있다
87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
99년생 이성하고는 물질은 빈곤하구나
54년생 직업 변경하지 말고 추진
66년생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78년생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대들지 마라
90년생 과욕 버리면 순탄하게 흘러갈 것

57년생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라
69년생 잊지 말고 지켜라 신용이 재산이다
81년생 안팎으로 기쁜 일이 생겨날 듯하다
93년생 침착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49년생 처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61년생 손윗사람이 음해하려 하는구나
73년생 거래처 원망함을 무슨 소용인가
85년생 도둑에게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
97년생 외출 삼가라
52년생 몸에 충격을 받기 쉬운날 운전 주의
64년생 계약이나 매대는 빨리 처리하라
76년생 참고 인내하면 금전이 배가 될 것
88년생 아이디어 과감히 밀고 나아가자
55년생 어려우나 신경쓰지 말고 진행
67년생 동료와 다들 일이 있어도 참여하라
79년생 배우자와 충돌 일어났다
91년생 활동하니 성공하게 될 것

58년생 마음 움직이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70년생 금전지출 신중하라
82년생 아랫사람을 믿지 마라
94년생 미팅 성과 없이 헛수고 하길 쉽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주변과 마찰이 생길 것
62년생 회식에 초대받는 날
74년생 자신의 거품을 걷고 내면을 보라
86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하는 날
98년생 지인들과 불화의 조정 타협
53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좋은 일 생길 것
65년생 배우자를 돌보아 주라 사랑 좋아진다
77년생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겠다.
89년생 상사 의견 따르는 게 좋다

56년생 뒷배가 지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68년생 모험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80년생 무모한 일에 손대지 말라
92년생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다

59년생 집에 홀로 있으니 고난과 갈등이 있다
71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83년생 거래가 이뤄져도 손해만 큰 법이다
95년생 미련이 남아 금전 손실이 많다